

‘십시일반’ 2만번째 새생명

심장재단 박지원군 수술성공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해 한국심장재단이 20년째 펼쳐온 진료비 후원사업의 2만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이번 진료비는 그간 재단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돼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2일 선천적으로 기형 심장을 가진 박지원군(2·제주시)이 수술을 받고 완쾌해 퇴원한다고 밝혔다.

박군은 생후 1개월 때 예방접종을 받다가 심장이상 사실을 알게 됐고, 정밀검사에서 폐동맥 협착과 우심실 비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선천성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박군의 부모는 방향제 판매로 월 7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어려운 처지여서 4백만~5백만원을 넘는 수술비 마련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군의 어머니 최나영씨(27)는 지난달 12일 재단에 지원을 요청했고, 박군은 결국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김동은기자 dek@kyunghyang.com



최근 심장수술로 새 생명을 얻은 심장재단 후원 2만번째 수혜자 박지원군을 어머니 최나영씨가 환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 서울대병원 제공